

2022-08-01 (2022-29호)

8월 1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韓 무역수지와 주가, 그리고 美 고용 살피며 환율 추가하락 모색

서울, 8월1일 (로이터) -

하반기 첫 달이 끝나고 두 번째 달을 시작하는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세계 경기 둔화 속 인플레이션 정점 가시화가 위험자산 가격에 호재라는 인식과 여전한 수급 불안이 부딪히며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세계 경기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상승 일변도를 보이던 달러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하고 달러/엔 환율은 직전 주간 1.8% 하락에 이어 지난주에는 2.1%로 낙폭을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직전 주 1.0% 하락에 이어 지난주 또다시 1.1% 하락하며 종가 기준으로 7월28일과 29일 연속 1,300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마쳐 반락 추세를 이어갔다.

환율 하락 시마다 저가 매수세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주식 자금 순유입 추세 지속 여부에 따라 환율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는 미국 주식시장 반등세 지속 여부와 함께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하고 있는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동향, 그리고 인플레이션 및 고용 관련 미국 경제지표 내용에 달러/원 환율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더구나,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근원 PCE 가격지수 모두 급등한 것이 위험자산 가격에 뒤늦게 반영될 가능성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험자산 가격에 우호적이었던 평가를 받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7월 정책회의가 끝난 직후인 이번 주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 월간 고용 보고서에 쏠릴 전망이다.

5일 발표될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금리 인상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줄 전망이다.

연준이 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연준 회의 때까지 앞으로 8주간 발표되는 고용 등 경제지표의 중요성은 더 크다.

로이터 조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5만5,000명 증가했으리라고 전망했다. 예상을 상회한 6월의 37만2,000명에 못 미치는 수치다. 7월 수치가 이보다 훨씬 작을 경우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경제지표와 주식시장 동향도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9시 발표되는 7월 한국 수출입 동향은 수출 둔화 추세 지속 여부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관심이다.

로이터통신이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응답자 11명)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4%(중간값), 수입은 20.7%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 증가율은 6월의 5.2%보다 개선되겠으

나 가격 요인과 주요 교역 상대국 경기 둔화를 고려하면 증가율 상승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7월 무역수지는 40.6억달러 적자로 6월의 25.7억달러 적자보다 규모가 확대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주식시장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지속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 증권시장에서 7,21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4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고, 이에 힘입어 코스피도 2.4%나 상승했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8월1일(월)

- ⊙ 산업통상자원부: 7월 수출입 동향 (09:00)
- ⊙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0:00)
- ⊙ 한국은행: 임시국회 업무보고
- ⊙ 통계청: 6월 온라인 쇼핑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2022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16:00)

8월2일(화)

- ⊙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08:00)
- ⊙ 기획재정부: 7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09: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회 본회의 (14:00)
- ⊙ 한국은행: 2022년 13차(7.13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8월3일(수)

- ⊙ 한국은행: 7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 알기 UCC 공모전 개최 (06:00)
- ⊙ 한국은행: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BOK이슈노트 2022-29)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2년 D-테스트베드 추진 (12:00)

8월4일(목)

- ⊙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회의 (10: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 간담회 (10:00)
- ⊙ 한국은행: 최근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평가 (BOK이슈노트 2022-30) (12: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14:00)

8월5일(금)

- ⊙ 금융감독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06:00)
- ⊙ 한국은행: 6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8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치	7월		Index (diffusion)	52.2
8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7월	51.5	Index (diffusion)	51.7
8월1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치	7월	49.6	Index (diffusion)	49.6
8월1일	18:00	유로존	실업률	6월	6.6%	Percent	6.6%
8월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치	7월		Index (diffusion)	52.3
8월1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6월	0.3%	Percent	-0.1%
8월1일	23: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7월	52.9	Index	53.0
8월1~3일	23:00	미국	총 자동차 판매	7월		Units	2.720M
8월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최종치	7월		Index (diffusion)	51.2
8월3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최종치	7월		Index (diffusion)	54.5
8월3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치	7월	50.6	Index (diffusion)	50.6
8월3일	18:00	유로존	생산자 물가 MM	6월		Percent	0.7%
8월3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MM	6월	0.1%	Percent	0.2%
8월3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7월29일 주간		Index	276.0
8월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치	7월		Index (diffusion)	47.0
8월3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6월		Percent	1.9%
8월3일	23:00	미국	공장주문 MM	6월	0.4%	Percent	1.6%
8월3일	23: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7월	54.0	Index	55.3
8월4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7월		Person	32.517k
8월4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25일 주간		Person	256k
8월5일	08:30	미국	가계지출 YY	6월		Percent	-0.5%
8월5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7월		USD	1,311.3B
8월5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6월		Index	-1.3
8월5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6월		Index	-1.7
8월5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7월	255k	Person	372k
8월5일	21:30	미국	실업률	7월	3.6%	Percent	3.6%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2일(화)

-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오후 1시30분)
-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언론인들과 조찬 모임 (오후 11시)
- ⊙ 뉴욕 연방은행, 2분기 가계부채 · 신용 보고서 발행 (자정)
- ⊙ 제임스 볼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뉴욕대학 연설 (3일 오전 6시30분)

8월4일(목)

- ⊙ 영란은행, 통화정책보고서 발행 · 금리발표 (오후 8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피츠버그 경제클럽 대담 참석 (5일 오전 1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유럽 가스 위기

유럽은 지금 폭염이지만 가스 공급 부족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춥고 어두운 겨울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 가스프롬이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통한 공급량을 수송능력의 5분의 1로 줄이면서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 가스 사용을 줄이고 겨울에 대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럽의 가스 가격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200% 가까이 폭등했고, 이런 충격이 오래 지속될수록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독일 산업체들이 전국 가스 수요의 36%를 차지하는 등 가스 공급이 절실한 가운데 기업 활동이 둔화되고 있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다. JP모간은 2023년 초 유로존이 경기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영란은행 금리 인상 전망

영란은행은 금리 인상을 일찍 시작했지만, 50bp, 75bp, 심지어는 100bp를 인상한 다른 나라들보다 보폭은 작았다. 하지만 8월4일 회의에서는 1.75%로 50bp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1995년 이후 최대 폭이 된다.

JP모간과 HSBC는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영란은행 정책 결정권자들 가운데 50bp 인상을 주장한 것은 세 명뿐이었지만, 이후 발표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율은 40년 만의 최고치인 9.4%까지 상승했다. 10월까지 영란은행 목표치의 여섯 배에 달하는 12%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필요시 강력히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영란은행이 2025년 이전 경제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로이터 조사에서는 25bp 인상 전망이 약간 더 우세했다.

영란은행은 25bp를 인상한다면 파운드 매도세를 초래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리스크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 美 월간 고용보고서

연방준비제도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미국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5일 발표될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금리 인상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줄 전망이다.

연준이 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연준 회의 때까지 앞으로 8주간 발표되는 고용 등 경제지표의 중요성은 더 크다.

테슬라에서 골드만삭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고용 둔화를 경고하는 등 이미 고용주들의 채용 의지는 줄어들고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5만5,000명 증가했으리라고 전망했다. 예상을 상회한 6월의 37만2,000명에 못 미치는 수치다. 7월 수치가 이보다 훨씬 작을 경우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호주 중앙은행 금리 인상 전망

트레이더들은 2일 호주 중앙은행(RBA) 회의에서 금리가 75bp 인상되리라는 베팅을 축소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율이 21년 만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50bp 인상은 확실시된다.

최신 지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 6.1% 상승해 목표치 2-3%와 임금 상승률을 두 배가량 상회했다. 게다가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필립 로우 RBA 총재는 현재 1.35%인 기준금리가 최소 2.5%인 중립 금리를 향해 상승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시장은 금리가 3.75%까지 상승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 브라질·인도 금리 인상 전망

2021년 3월부터 금리를 1,125bp 인상한 브라질은 3일 회의에서도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 29명 중 23명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13.75%로 50bp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적인 통화정책 긴축에 뒤늦게 합류한 인도도 지속적인 인상이 전망된다. 중앙은행은 사상 최저치를 거듭 경신한 루피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최근 수 주간 시장에 대대적으로 개입했다.

로이터 조사에서 4일 통화정책 회의를 갖는 인도 중앙은행은 금리를 현재의 4.90%에서 연말 5.6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29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99.1	1.1%	-8.5%	-8.6%	유로	1.0220	0.1%	-10.1%	-6.9%
100엔 대비	978.4	-1.5%	5.6%	+1.8%	엔	133.21	2.1%	-13.6%	-10.3%
유로 대비	1,332.0	0.5%	1.5%	-1.9%	위안	6.7433	0.1%	-5.8%	+2.7%
위안 대비	193.25	0.5%	-3.2%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2,845.13	3.0%	-9.6%	+18.7%
코스피	2,451.50	2.4%	-17.7%	+3.6%	나스닥	12,390.69	4.7%	-20.8%	+21.4%
코스닥	803.62	1.8%	-22.3%	+6.8%	S&P500	4,130.29	4.3%	-13.3%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22.31	0.2%	-17.1%	-4.9%
국고채 3Y	3.009%	-20.9bp	121.1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067%	-23.2bp	105.6bp	+67.6bp	미국채 2Y	2.890%	-8.0bp	216.0bp	+61.0bp
국고채10Y	3.127%	-17.5bp	87.7bp	+53.7bp	미국채 10Y	2.660%	-9.0bp	115.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98.30	3.4%	30.3%	+55.8%	한국 5Y	42.8bp	-4.6bp	20.7bp	-0.7bp
금(현물)	1,766.22	2.2%	-3.4%	-3.6%	일본 5Y	26.4bp	-3.9bp	8.7bp	+2.1bp
TR상품지수	3,543.81	2.8%	6.1%	+24.6%	중국 5Y	77.2bp	-5.9bp	36.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